



Insta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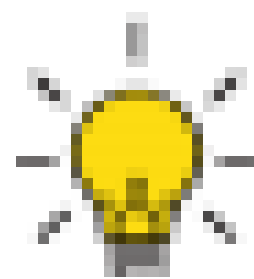
6월 보건소식지

계기교육

6월 9일 구강 보건의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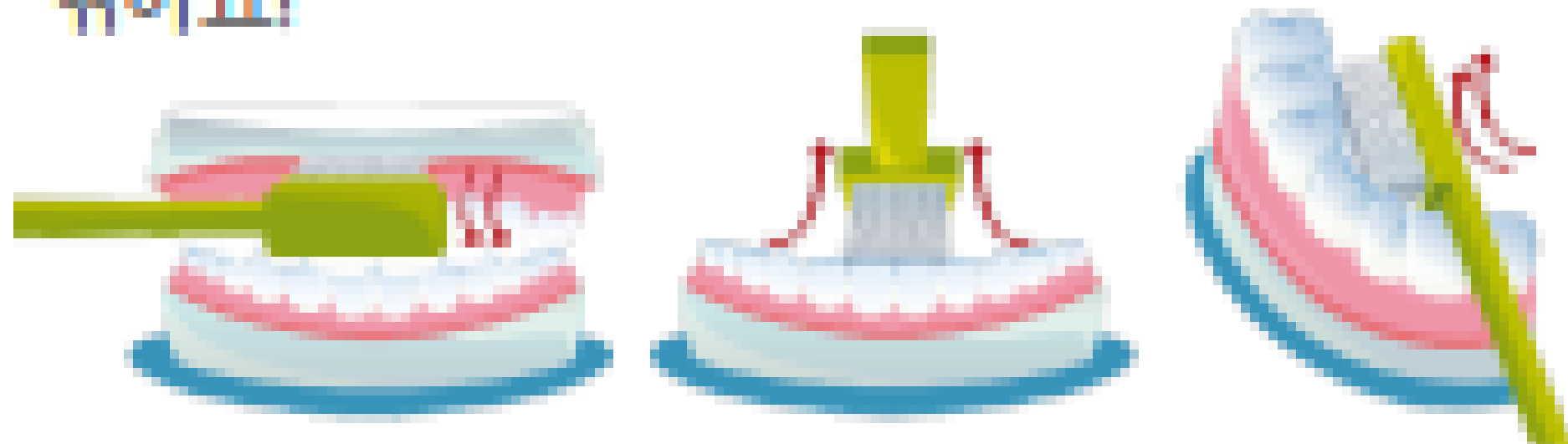
‘구강보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한 법정기념일(2016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지정). 어금니가 나오는 시기인 6세의 ‘6’과 어금니(臼齒, 구치)의 ‘구(臼)’를 숫자 ‘9’로 바꾼 6월 9일을 ‘구강 보건의 날’로 정한 것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건강한 치아를 위해 실천해요!

- 건강한 구강관리법

칫솔질은 음식을 먹고 난 후, 자기 전에, 회전법으로, 치실 사용, 혀까지 깨끗하게 닦아요!



구강관리는 이렇게

- 충치유발지수 높은 음식은 NOOO!!

예) 젤리, 캐러멜처럼 치아에 끈적이며 달라붙는 음식

● 부정교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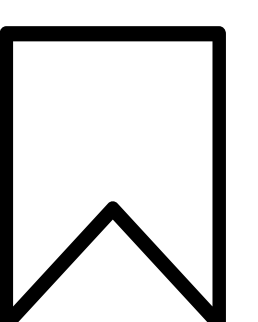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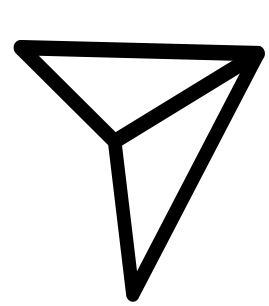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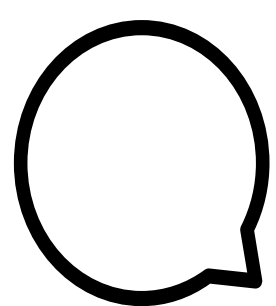
덧니, 벌어진 치아, 어금니 안 씹힘, 주걱턱, 무턱, 비대칭 등을 통칭, 교정치료를 하고 있는 학생도 있지요?

● 부정교합의 신호

- ① 앞니로 음식 씹기 어려움
- ② ‘스, 지, ㅈ’발음 부정확
- ③ 입술이 잘 안 다물어짐
- ④ 어금니로 잘 안 씹힘
- ⑤ 코끝 ~ 턱 T자로 했을 때 입이 먼저 닿거나 너무 떨어짐

● 부정교합의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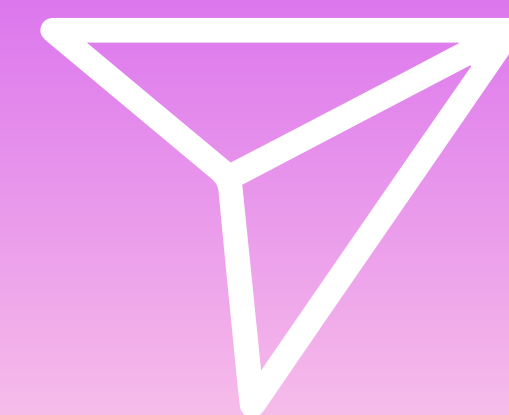
구강위생 불량으로 충치, 잇몸병이 생길 수 있으니 조기 검사와 진단이 필요



1,000,000 likes



Instagram



6월 보건소식지

감염병 정보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물도 독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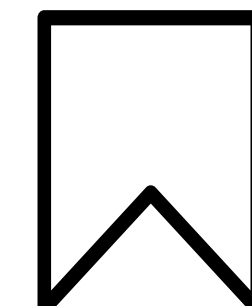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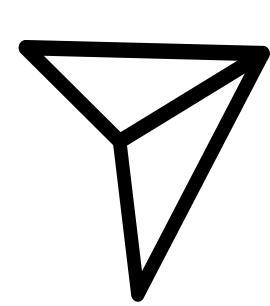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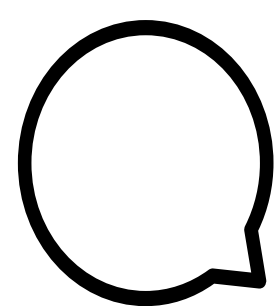


●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 원인: 병원성 미생물(바이러스), 독성물질에 오염된 물이나 식품 섭취
- 증상: 설사, 복통, 구토 등 위장관 증상
- 종류
 - 제2급(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E형간염)
 - 제3급(비브리오패혈증)
 - 제4급(장관감염증)
- 감염 경로
 - 주로 오염된 식수와 식품을 매개로 전파
 - 매우 적은 양의 세균으로 감염될 수 있어 환자나 병원체 보유자와 직·간접 접촉에 의한 감염도 가능(장난감, 욕실 비품, 기저귀 교환대, 기저귀 통과 같은 오염된 표면 등)
 - 환자와 같은 장소에서 수영하는 경우 물에 의해 전파

● 예방법

- 올바른 손 씻기 6단계 생활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 반드시 물은 끓여서, 음식은 익혀 먹기
중심 온도 75도 이상(특히, 어패류는 85도 이상) 충분히 익히기
- 행주 등 주방기기는 자주 소독하고 생선, 고기, 채소, 도마는 분리하여 사용하기
- 채소, 과일은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거나 껍질을 벗겨서 먹기
- 설사, 복통 등 위장관 증상이 있는 경우는 음식 조리하지 않거나 위생에 주의
- 음식 섭취 후 24시간 이내 3회 이상 설사나 구토 증상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병원 진료받기



1,000,000 likes